

KINU Insight

2019
No.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KINU Insight 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인도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 참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I. 문제제기	1
II. INF조약 체결의 배경과 성과	3
III. 미국의 INF조약 탈퇴 배경	6
IV. INF조약 탈퇴가 미국 핵전력 및 트럼프 행정부 행정책에 미칠 영향	9
V. INF조약 탈퇴가 트럼프 행정부 군사·안보전략에 미칠 영향	12
VI.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16
참고문헌	19

I 문제제기

- 2019년 2월 1일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거리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이하 INF조약) 탈퇴를 선언함.
- 2018년 10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INF조약 위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조약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존 볼턴(John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를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 의사를 전달함.¹⁾
- 2018년 12월 4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이후 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 러시아의 조약 준수를 요구함.
- 미·러 양측은 금년 1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경 INF조약은 파기될 예정임.²⁾
- 그동안 INF조약이 미·러 간 핵군축과 핵 비확산과 관련된 국제 조약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볼 때 INF조약 파기의 파장은 매우 클 것이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군비 경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1) "Trump Said the U.S. Should Expand Nuclear Weapons. He's Right," *Politico Magazine*, December 23, 2016, <<https://www.politico.com/magazine/story/2016/12/trump-said-the-us-should-expand-nuclear-weapons-hes-right-214546>> (Accessed March 6, 2019); "Trump Confirms U.S. to Abandon Nuclear Arms Treaty with Russia," UPI, October 20, 2018, <https://www.upi.com/Top_News/World-News/2018/10/20/Trump-confirms-US-to-abandon-nuclear-arms-treaty-with-Russia/5161540070755/> (Accessed March 6, 2019).

2) 고재남, "INF 조약의 폐기 예정과 함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Ifans Focus 2019-03k, 2019.2.1.) p. 1, <<http://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07&pblctDtaSn=13351&koreanEngSe=KOR>> (검색일: 2019.3.1.); U.S. Department of State, "INF Diplomatic Timeline," February 1, 2019, <<https://www.state.gov/t/avc/inf/287411.htm>> (Accessed March 6, 2019).

-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 및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에 부정적

- 이에 본 보고서는 INF조약 체결과 미국의 탈퇴 선언 배경에 대해 검토하고, INF조약 탈퇴가 트럼프 행정부의 핵정책과 군사·안보전략에 미칠 영향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

II INF조약 체결의 배경과 성과

□ 조약 체결의 배경

- 냉전 초기 미국은 압도적인 핵전력을 바탕으로 자국 본토에 장거리 전략핵무기를 배치하여 소련의 공격을 차단하고, 단거리 전술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유럽에 대거 배치하여 재래식 군사력이 소련의 공격 방어에 실패하면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투입하여 소련을 제압하는 전략을 취함.³⁾
- 그러나 소련의 핵과 미사일전력이 급속하게 증강되면서 이러한 미국의 ‘확증파괴(assured destruction)’ 전략은 유효성을 상실하게 됨.
 - 1970년대부터 소련이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을 사정권에 두는 SS-20 파이오니어 (Pioneer)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유럽에 배치
 - 나토 유럽 회원국들은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에 촉구
- 나토는 1979년 12월 소위 ‘이중궤의(Dual-Track Decision)’를 채택하여 소련과의 핵군비통제 협상을 추진함과 동시에 협상이 실패할 경우 SS-20과 동급인 핵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한다는 전략을 세움.⁴⁾
- 소련과의 군비통제 협상이 난항을 겪자 미국은 결국 1979년 노후한 지상발사탄도미사일인 MGM-31A 퍼싱 I(Pershing I) 탄도미사일을 MGM-31-B 퍼싱 II(Pershing II) 미사일로 교체하고 BGM-109 그리폰 G(Gryphon G) 지상발사순항미사일을 서독,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지에 배치하기로 결정함.

3) 김재엽, “냉전 후기 유럽의 중거리 핵전력(INF) 경쟁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미국 핵무기 재배치’ 주장에 관한 비판을 중심으로,” 『군사』, 제101권 (2016), pp. 50~51.

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ussian Compliance with the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INF) Treaty: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February 8, 2019, pp. 12~15, <<https://fas.org/sgp/crs/nuke/R43832.pdf>> (Accessed February 27, 2019).

- 탈냉전이 시작되었던 1986년 미소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서기장은 미국이 유럽 내 핵무기 배치 정책을 철회하는 대가로 소련이 SS-20, SS-4, SS-5 미사일을 폐기하는 제로옵션(Zero-Option)을 받아들이기로 전격 합의함.⁵⁾
- 1987년 12월 8일 미국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INF조약에 서명한 뒤 이듬해인 1988년 6월 1일 조약이 시행됨.

□ INF조약의 주요 내용과 성과

- INF조약은 핵군축 역사상 가장 구체적이고 엄격한 군비통제 조약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음⁶⁾
 - 사거리 500km~5,500km의 지상발사 중·단거리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대를 포함한 모든 관련 시설을 폐기하도록 규정
 - 미사일의 실험, 생산, 배치를 전면적으로 금지
- 다른 군축·군비통제 조약과는 달리 여러 단계의 검증 체계를 구축함.
 - 각자의 검증 체계를 통한 검열
 - 중·단거리 핵전력과 관련된 모든 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과 정보 제공에 동의
 - 핵미사일의 폐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완전한 폐기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10년간 검증 절차를 진행
 - 상호 협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별검증위원회(Special Verification Commission: SVC) 설치 및 운용⁷⁾

5) *Ibid.*, pp. 15~16.

6) U.S. Department of Stat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 (INF Treaty)," <<https://www.state.gov/t/avc/trty/102360.htm>> (Accessed March 6, 2019).

7) Arms Control Association,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Treaty at a Glance," <<https://www.armscontrol.org/factsheets/INFtreaty>> (Accessed January 3, 2019).

- 1991년까지 소련은 총 1,846개, 미국은 846개 등 총 2,692개의 미사일과 제반 시설을 폐기함.

-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국가들도 조약에 참여시켜 INF조약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⁸⁾

8) 소련의 붕괴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이 중거리핵무기 시설을 갖게 됨. U.S. Department of State, "Treaty between the US and USSR."

III 미국의 INF조약 탈퇴 배경

□ 미국의 러시아 조약 위반 주장

- 미국은 INF조약 탈퇴 결정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러시아의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2013년 5월 러시아의 조약 위반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
 - 2014년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조약 및 합의에 관한 이행보고서(Report on Adherence to and Compliance with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s and Commitments, 이하 이행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명문화
 - 매년 이행보고서에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반복적으로 지적⁹⁾

- 현재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거리가 2,500km로 추정되는 지상발사순항미사일인 SSC-8 미사일 체계임(러시아 명 9M729 노바토르(Novator) 미사일).¹⁰⁾
 - 미국은 러시아가 이미 2000년대 중반 미사일 시험을 시작하여 2015년에 개발을 완료했고 러시아 남서부에 2개의 미사일 대대를 배치했다고 추정¹¹⁾

9)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Compliance Reports,” <<https://www.state.gov/t/avc/rls/rpt/index.htm>> (Accessed March 6, 2019).

10) Missile Defense Projec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SSC-8 (Novator 9M729),” October 23, 2018, last modified January 23, 2019,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ssc-8-novator-9m729/>> (Accessed March 6, 2019);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는 9M729 미사일의 존재는 인정했으나, 미사일의 사거리가 480km 이하이며 어떠한 지상발사시험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약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ussian Compliance with the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INF) Treaty,” p. 4.

11) U.S. National Intelligenc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aniel Coats on Russia’s INF Treaty Violation,” November 20, 2018, <<https://www.dni.gov/index.php/newsroom/speeches-interviews/item/1923-director-of-national-intelligence-daniel-coats-on-russia-s-inf-treaty-violation>> (Accessed March 6, 2019).

□ 중국의 부상

- 미국과 러시아는 양자 간 군축 조약인 INF조약이 냉전 이후의 새로운 안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음.¹²⁾
- 특히, 미국은 중국의 경제, 군사적 부상이 미·러 간 군축을 통해 유지하던 전략적 안정성(strategic stability)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인식해왔고, 이 점은 미국의 INF조약 탈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¹³⁾
 - INF조약을 파기하는 대신 중국을 조약에 참여시켜 INF조약을 다자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있었으나 중국의 거부로 무산¹⁴⁾
- 미국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약 95%를 INF조약상 금지되는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 모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알려짐.¹⁵⁾

12) 미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미국과 러시아가 INF조약의 제약을 받는 사이 다른 국가들은 본격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돌입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신무기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한때 미국에 함께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제안했음. Frank A. Rose, "The End of an Era? The INF Treaty, New START, and the Future of Strategic Stability," *Brookings*, February 12, 2019,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19/02/12/the-end-of-an-era-the-inf-treaty-new-start-and-the-future-of-strategic-stability/>> (Accessed March 6, 2019).

13) "China Won't Join the INF Treaty - But Can I Forever Dodge Arms Control?" *The Diplomat*, February 25, 2019, <<https://thediplomat.com/2019/02/china-wont-join-the-inf-treaty-but-can-it-forever-dodge-arms-control/>> (Accessed March 6, 2019).

14) *Ibid.*

15)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China's Missile Program and U.S. Withdrawal from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Treaty," January 28, 2019, p. 3, <<https://www.uscc.gov/Research/chinas-missile-program-and-potential-us-withdrawal-intermediate-range-nuclear-forces-inf>> (Accessed February 27, 2019).

〈표 1〉 중국 미사일 체계와 INF조약 규정상 위반 여부

미사일 체계	INF 규정상 위반 여부	추정 사거리	추정 발사대 수	추정 미사일 수
중거리탄도미사일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IRBMs)	○	3,000+ km	16~30	16~30
준중거리탄도미사일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s: MRBMs)	○	1,500+ km	100~125	200~300
지상발사순항미사일 (Ground-Launched Cruise Missiles: GLCMs)	○	1,500+ km	40~55	200~300
단거리탄도미사일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SRBMs)	○ (상당량의 단거리 미사일은 5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고 있음)	300~1,000km	250~300	1,000~1,200
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s)	○ (일부 소수의 미사일이 5,500km 이하의 사거리를 갖고 있음)	5400~13,000+ km	50~75	75~100

*출처: U.S Congress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China's Missile Program and U.S. Withdrawal from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Treaty," p. 3.

□ '불량 국가(rogue states)'로부터의 핵미사일 위협

- 북한 및 이란 등 소위 '불량 국가(rogue states)'로부터의 핵미사일 위협도 미국이 조약 탈퇴를 고려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사거리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자, 모든 영역에서의 미국의 핵전력을 증강하고 전방위적인 다중미사일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였음.¹⁶⁾

16)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United States of America 2017,"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Accessed March 6, 2019).

IV INF조약 탈퇴가 미국 핵전력 및 트럼프 행정부 행정책에 미칠 영향

□ 핵전력체계의 보강과 핵무기 현대화 정책의 확대 가능성

- INF조약은 군비통제 측면에서는 성과를 인정받고 있지만, 미국의 핵전력 측면에서는 지상 기반 핵전력의 상대적 약화를 야기함.
- 지상발사미사일의 전략적, 경제적 이점 때문에 미국 내에서 지상발사미사일전력의 증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해상과 공중기반 미사일은 생존성(survivability)과 유연성(flexibility) 면에서 이점
 - 반면, 지상발사미사일은 분산 배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괴멸적 타격으로부터 생존성이 높고 적의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responsiveness)이 가능하다는 이점¹⁷⁾
 - 더욱이 지상발사미사일은 해상과 공중발사미사일에 비해 유지비용도 저렴
- 따라서 미국의 INF조약 탈퇴는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력체계를 보강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2018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담긴 핵무기 현대화 정책

- 핵무기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비핵화와 ‘핵이 없는 세상’이라는 정책적 기초를 유지했던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핵무기가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핵심 전략 요소임을 강조함.
 - 핵무기 현대화를 통한 핵전력의 향상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과 이란·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

17)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U.S. Nuclear Triad: The Most Strategically Sound and Cost-Effective Means of Ensuring Nuclear Deterrence,” <<https://media.defense.gov/2018/Feb/02/2001872882/-1/-1/1/U.S.-NUCLEAR-TRIAD.PDF>> (Accessed January 18, 2019).

-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해상, 지상, 공중의 모든 영역에서 핵억제 전력의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¹⁸⁾

〈표 2〉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핵무기 현대화 정책

해상기반억제전력	지상기반억제전력	공중기반억제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1~1990년 사이 배치된 14척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순차적으로 콜럼비아급 잠수함으로 교체 ● 노후한 D5트라이던트 II 미사일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9년 지상기반전략억제(GBSD) 프로그램 완료 ● 미니트맨 III 대륙간탄도미사일을 200개의 새로운 미사일로 교체 ● 450개 발사시설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52H폭격기, B-2A스텔스폭격기를 대체할 차세대폭격기 B-21레이더 개발 ● 노후한 공중순항미사일 (ALCM)을 원거리순항미사일(LRSO)로 교체 ● F-35폭격기를 이중능력폭격기(DCA)로 개조

- 이 외에도 미국은 새로운 저강도 탄두를 개발하여, 현재 트라이던트 잠수함에 탑재되어 있는 트라이던트 II(Trident II) 미사일의 W76-I 탄두를 저강도 탄두인 W76-II로 교체할 예정임.
 - 러시아의 ‘제한적 핵 선제공격(limited nuclear first use)’을 포함하는 ‘비확전을 위한 확전(escalate to de-escalate)’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 핵 관련 명령, 통제, 교신 체계(Nuclear 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 NC3)의 현대화를 통해 위협의 감지와 명령 전달 체계의 개혁, 핵무기 기반시설의 개선과 기술 및 인력 보강 등의 계획도 함께 추진 중임.

□ 핵무기 확대와 교체 정책의 병행 가능성

-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정책은 전반적으로 무기의 확대(expanding)보다는 낙후된 무기를 교체(replacing)하거나 개선(upgrading)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러시아는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¹⁹⁾

18)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2018,” <<https://dod.defense.gov/News/SpecialReports/2018NuclearPostureReview.aspx>> (Accessed November 7, 2018).

19) Austin Long, “Testimony: Russian Nuclear Forces and Prospects for Arms Control,” *RAND Cooperation*,

- 미국이 INF조약에서 자유로워질 경우 러시아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개발이 중단되었던 지상형 중거리미사일의 생산과 전력화를 다시 시도하며 확대와 교체 정책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8월과 11월에 사거리 약 1,000km 저공비행순항미사일(low-flying cruise missile)과 사거리 3,000~4,000km 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을 계획²⁰⁾
-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및 탄두를 지상발사형으로 개조하여 배치하거나, 잠수함발사미사일에 장착할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인 저강도 탄두를 지상배치용 미사일에 장착하여 운용할 가능성도 존재

June 21, 2018, <https://www.rand.org/content/dam/rand/pubs/testimonies/CT400/CT495/RAND_CT495.pdf> (Accessed March 6, 2019).

20) "US Plans Tests This Year of Long-Banned Types of Missiles," *AP News*, March 13, 2019, <<https://www.apnews.com/ea243a96bc254378ba92f1e3e8761389>> (Accessed March 19, 2019).

V INF조약 탈퇴가 트럼프 행정부 군사·안보전략에 미칠 영향

□ 유럽 내 미국-러시아 간 경쟁의 심화

- 트럼프 행정부의 INF조약 탈퇴 선언은 직접적으로는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대외적 선언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은 이미 유럽에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하여 러시아와 심각한 갈등 상황
- 러시아가 현재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미국의 지상형 이지스어쇼어 미사일 방어체계(Aegis Ashore Missile Defense Systems)로서, '유럽의 단계적 적응 접근(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 EPAA)' 미사일 방어 정책의 일환으로 루마니아, 폴란드 등에 배치되거나 도입이 예정된 미사일 방어체계임.²¹⁾
 - 미국이 EPAA에 따라 루마니아에 이지스함에서 사용되는 MK-41 발사대를 설치한 것에 대해 러시아는 거세게 반발
 - 러시아는 MK-41 발사대가 중거리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 미사일(Tomahawk cruise missile)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INF조약 위반이라고 주장²²⁾
-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INF조약 탈퇴 이후 러시아의 9M729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도로써 유럽 내에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의 배치를 고려할 수 있음.²³⁾

21)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9월 17일 발표한 유럽의 미사일 방어에 대한 단계적 적응 접근 정책은 이지스어쇼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근간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세 단계에 걸쳐 해상과 지상 기반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미국은 이는 이란으로부터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이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음. Arms Control Association, "The 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 at a Glance," January 15, 2019, <<https://www.armscontrol.org/factsheets/Phasedadaptiveapproach>> (Accessed March 6, 2019).

22) Austin Long, "Testimony: Russian Nuclear Forces and Prospects for Arms Control"; 이외에도, 러시아는 미국이 요격 미사일 시험용으로 노후한 장거리미사일 모터를 이용하여 표적미사일(target missile)을 생산한 것 또한 INF조약 위반으로 규정함. 러시아는 미국의 무장무인항공기(armed unmanned aerial vehicles, 무장드론) 생산 역시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함.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ussian Compliance with the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INF) Treaty," pp. 27~30.

□ 아시아-태평양 내 미국-중국 간 경쟁의 심화

- 미국의 INF조약 탈퇴와 그로 인한 미국의 군비 증강 가능성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경쟁을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INF조약 탈퇴 이유로 중국을 거론
 - 중국은 INF조약 불참을 표명하는 한편, 미 중거리미사일의 인도-태평양 지역 배치를 경계²⁴⁾

- 만약 미국이 아시아에서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을 전력화한다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지역은 서태평양 지역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미·중 간 충돌이 불가피해짐.

- 2017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에서는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훼손하는 국가로 지목하면서,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제한시키고 있다고 규정함.²⁵⁾

-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간 핵심이 되는 쟁점은 남중국해 문제임.
 - 중국은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 nine dash line)’을 근거로 남중국해의 90% 가량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며 베트남 및 필리핀 등과 갈등
 -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하여 미사일과 군사전파교란시설을 배치하는 등 군사 시설로 이용²⁶⁾
 -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ONOP)’을 지속적으로 수행

23) Ian Williams, "Leaving the INF Treaty Now Is the Right Call," CSIS, October 24, 2018.

24)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China's Missile Program and U.S. Withdrawal from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Treaty," p. 5.

25)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United States of America 2017," p. 46.

26)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정보: 남중국해 분쟁," 2018. 11., <<http://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66&idx=91&depth=3>> (검색일: 2019.3.6.).

- 트럼프 행정부 역시 전 정권의 기초를 이어받아 2018년에만 네 차례 시행
- 현재 시진핑 지도부의 대미 정책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타협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지만, 만약 중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직접적인 충돌도 불사할 가능성도 상존함.²⁷⁾
-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간주되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대표적²⁸⁾
-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군사전략에의 영향: 국제공역에서의 접근 및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JAM-GC)
- 미국이 INF조약의 제약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작전개념으로 삼은 ‘국제공역에서의 접근 및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Global Commons: JAM-GC)’의 구현에 지상배치 중거리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2016년 10월 19일 폴 셀바(Paul Selva) 미 부합참의장은 JAM-GC 개념을 미국의 합동작전 개념으로 공식 승인함.²⁹⁾
- JAM-GC는 2009년 만들어진 공해전(Air-Sea Battle) 개념을 수정, 보완한 개념으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안
- 공해전 개념은 전쟁의 초기 단계에 공군과 해군의 합동작전을 통해 적의 지휘통제 시설을 타격함으로써 적의 정밀 타격 능력을 파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반면, JAM-GC 개념은

27) 신중호,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 152.

28) 변창구, “미중 패권경쟁과 남중국해 분쟁 - 실태와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79권 (2016), p. 28.

29) Michael E. Hutchens *et al.*,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A New Joint Operational Concept,” *Joint Force Quarterly*, vol. 84, 1st Quarter (2017), p. 135, <<https://ndupress.ndu.edu/Media/News/Article/1038867/joint-concept-for-access-and-maneuver-in-the-global-commons-a-new-joint-operati/>> (Accessed March 6, 2019).

육, 해, 공, 우주, 사이버군의 상호 작전이 가능한 합동군으로 구현될 것임.³⁰⁾

- 공해전이 지상군의 역할을 배제한 채 공군과 해군의 합동작전만을 강조했다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추후 JAM-GC 개념의 구현 시 공해전 개념에서 배제되었던 지상군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³¹⁾
- 따라서 미국이 INF조약의 제한에서 벗어난다면 지상기반 미사일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도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수정하고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상응하는 미사일을 증강, 배치하여 미국에 대응할 것임.
- 미국이 조약 탈퇴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지상발사중거리미사일을 생산하거나 전력화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중국과 여러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 주변에 지상발사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중국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개연성은 존재함.

30) *Ibid.*, pp. 135~136; 설인호, “트럼프 행정부 대중 군사전략 전망과 한미 동맹에 대한 함의: JAM-GC 개념의 발 전방향 분석을 중심으로,” 『신안보연구』, 제191권 겨울호 (2017), p. 184; Michael E. Hutchens *et al.*,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A New Joint Operational Concept,” p. 137

31) 설인호, 위의 글, p. 194.

VI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 미국의 INF조약 탈퇴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종합 분석
- 트럼프 행정부의 지상발사형 중·단거리미사일의 전력화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지상발사형 중·단거리미사일 배치로 촉발될 수 있는 동북아 지역 내 군비 경쟁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이후 구축될 신 안보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신 안보질서란, 미국의 아-태 지역 군사전략 수정에 따른 중국의 대응 전략, 미국의 미사일 배치와 관련된 아-태 지역 동맹전략 변화 등으로 구축되는 새로운 안보 지형
-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양자 간 군비통제뿐만 아니라 역내 다자 간 군비통제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INF조약 탈퇴가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미치게 될 파급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한국의 안보태세, 한국의 동아시아, 대미, 대중, 대북 관계 및 대북 억제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외교적, 정책적인 대비를 해야 함.
 - 역내 미국의 지상발사형 중·단거리미사일 배치 이후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 마련
 -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배치를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용 여부 및 중국과 북한의 반발에 대응할 대책 마련
 - 미국이 일본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한·미, 한·미·일 동맹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 아-태 지역 내 미사일 배치 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분석
 - 미국의 지상발사형 중·단거리미사일 전력화가 동아시아 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미칠 영향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의 상호운용성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 국민들에게 한반도 주변 군비 경쟁과 정부의 안보 태세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함.

- 미중갈등의 심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

- 미국의 INF 탈퇴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미 지상발사 중·단거리미사일이 전력화될 경우 미·중 관계의 악화는 불가피하며, 한반도 문제가 다시금 미·중 관계와 패권 경쟁 속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아짐.
 - 미·중이 한반도 문제를 미·중 관계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하나의 카드로 이용 가능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자처해왔으며 북한 역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
 - 지난 3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³²⁾
 - 2차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합의가 결렬된 후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역할론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분석 대두³³⁾
 -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상응하는 유엔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과 대립

- 미·중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미·중 갈등이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³⁴⁾

32) 『연합뉴스』, 2019.2.27.,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7153100083?input=1195m>> (검색일: 2019.3.6.).

33) 『연합뉴스TV』, 2019.3.2.,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302008500038/?did=1825m>> (검색일: 2019.3.6.).

34) 김재철, “미-중관계와 한국 대미편승전략의 한계: 사드배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3호 (2017), pp. 22~25.

- 한국은 양자택일 노선을 지양하고 고위급 회담을 통해 대화 지속
- 한·미·중 대화 채널 가동하여 3자 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갈등을 완화

□ 북미협상 교착 국면의 장기화 방지

- 북한의 포괄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미사일을 전력화할 경우 북미 관계는 경색될 것이며, 교착 국면의 장기화는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동력 약화를 초래할 것임.
-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강도 높은 도발로 대응할 경우 2018년 이후 진전된 북미, 남북관계는 퇴보가 불가피함.
-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북이 협상 재개의 필요성에 공감한 이상, 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대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
 - 5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한미는 북한에 대화 재개 촉구
 - 북한 역시 연내 정상회담 개최 촉구
 -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난 양측의 조건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협상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참고문헌

가. 단행본

신중호.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나. 논문

김재엽. “냉전 후기 유럽의 중거리 핵전력 (INF) 경쟁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미국 핵무기 재배치’ 주장에 관한 비판을 중심으로.” 『군사』. 제101권, 2016.

김재철. “미-중관계와 한국 대미편승전략의 한계: 사드배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3호, 2017.

변창구. “미중 패권경쟁과 남중국해 분쟁 - 실태와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79권, 2016.

설인호. “트럼프 행정부 대중 군사전략 전망과 한미 동맹에 대한 함의: JAM-GC 개념의 발전방향 분석을 중심으로.” 『신안보연구』. 제191권 겨울호, 2017.

Hutchens, Michael E., William D. Dries, Jason C. Perdew, Vincent D. Bryant, and Kerry E. Moores.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A New Joint Operational Concept.” *Joint Force Quarterly*. vol. 84, 1st Quarter. 2017.

Korb, Lawrence J. “Rising Tensions, Nuclear Modernizations: How Washington Can Turn Down the Heat.”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73, no. 3. 2017.

다. 기타자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http://www.ifans.go.kr/>>.

『연합뉴스』. <<http://yna.co.kr/>>.

『연합뉴스TV』. <<http://yonhapnewstv.co.kr/>>.

한국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

AP News. <<http://www.apnews.com/>>.

Arms Control Association. <<https://www.armscontrol.org/>>.

Ars Technica. <<https://arstechnica.com/>>.
Brookings. <<https://www.brookings.edu/>>.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s. <<https://fas.org/>>.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https://www.csis.org/>>.
Politico Magazine. <<http://www.politico.com/>>.
RAND Cooperation. <<https://www.rand.org/>>.
The Diplomat. <<http://thediplomat.com/>>.
The Hill. <<http://thehill.com/>>.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
UPI. <<https://www.upi.com/>>.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https://www.uscc.gov/>>.
U.S. Department of Defense. <<https://www.defense.gov/>>.
U.S. Department of State. <<https://www.state.gov/>>.
U.S. National Intelligence. <<https://www.dni.gov/>>.
U.S. Naval Institute. <<https://www.usni.org/>>.

고재남. “INF 조약의 폐기 예정과 합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IFANS FOCUS*
2019-03k. 2019.2.1.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정보: 남중국해 분쟁.” 2018.11.

Long, Austin. “Testimony: Russian Nuclear Forces and Prospects for Arms Control.”
RAND Cooperation. June 21, 2018.

Rose, Frank A. “The End of an Era? The INF Treaty, New START, and the Future of
Strategic Stability.” *Brookings*. February 12, 2019.

Schneider, Mark B. “Escalate to De-escalate.” *U.S. Naval Institute*.

Williams, Ian. “Leaving the INF Treaty Now Is the Right Call.” *Center for Strategic an*

d International Studies. October 24, 2018.

Missile Defense Projec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SSC-8 (Novat or 9M729).”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United States of America 2017.”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U.S. Nuclear Triad: The Most Strategically Sound and Cost-Effective Means of Ensuring Nuclear Deterrence.”

_____. “Nuclear Posture Review 2018.”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Compliance Reports.”

_____. “INF Diplomatic Timeline.”

_____.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 (INF Treaty).”

U.S. National Intelligenc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aniel Coats on Russia’s INF Treaty Violation.” November 20, 2018.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0,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0,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에 대한 함의

KINU Insight 19-03

발 행 일 2019년 6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편 집 인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홈 페이지 <http://www.kinu.or.kr>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 통일연구원, 2019